

# 전북도, 다중이용시설 집중 관리

### 콜센터·코인노래방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시설에 자체 방역·예방수칙 안내 등 실시

전북도는 콜센터와 코인노래방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도는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아래 이런 다중밀집공간에 있는 사업장·시설 등을 선제적 집중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은 콜센터, 노래방, PC

방, 클럽,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비말 감염 위험성이 큰 근무환경에 놓인 사업장과 시설이다.

11일 오후 2시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콜센터는 15곳으로 여기에는 1,389명이 근무 중이며, 도는 계속해서 조사 중에 있다. 또한, 도내 PC방은 809개, 노래방 967개, 헬스장 27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감염증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자체 방역과 환기를

실시할 것 등을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재택근무 등 밀집도 낮추기,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등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손 소독제 비치 등 위생 및 환경 관리 등 3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업장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는 12일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13일에는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 합동 영상회의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시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제시한 3대 개선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장 소독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도는 집중관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 7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 도내 치료 중인 대구지역 환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숨져

전북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상 호전에 따라 격리해제 되고 퇴원했다.

도내 음압격리병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숨졌다.

전북도는 11일 군산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A씨가 증상이 호전되고 10일과 11일,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한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돼 격리해제하고 이날 낮 12시에 퇴원 조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증상이 시작돼 3월 1일 전주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3월 2일 양성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증상이 경미한 상태였고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원광학교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B(84, 여)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사망했다.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확진환자로 판명돼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월 29일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당시 B씨는 폐렴, 호흡곤란 등으로 중증상태였으며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었다.

화장 절차는 유족과 협의해 진행하고 화장시설, 운구차량 등은 익산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완료된 뒤 유골함은 대구로 운반돼 유족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긴급 구호 물품 지원** 굿네이버스 전북본부는 전북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8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사진=굿네이버스 전북본부 제공>

## 전북도, 범정부 통합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플랫폼 운영

### 행정·공공기관 업무시간 외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검색

전북도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조회하고 예약 및 결제서비스가 가능한 범정부 통합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플랫폼(이하 '공유누리')을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누리는 웹과 모바일에서 행정·공공기관이 업무시간 외에 개방하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북도청 공연장과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전주 덕진예술회관 강당,

익산 영등시민공원 풋살장에 이르기까지 도와 14개 시군의 공공자원을 지도상에서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기존 '정부24'에서도 개방시설 목록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용자들이 정보를 확인한 다음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유누리(www.eshare.go.kr)에 접속하여 지역별 검색은 물론 회의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과 연구장비, 책상·의자 등 물품의 유형별 검색이

가능하며, 위치·이용조건·이용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된 자원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을 추가 발굴하고 향후 서비스 대상을 교육·강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유누리 포털에서는 서비스 오픈일인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포털이 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오픈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벤트 별로 5~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연구원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꽃집을 돕기 위해 꽃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 전북연구원, '꽃 선물 릴레이' 동참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화훼업계 돕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화훼업계를 돕기 위한 꽃 선물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꽃집을 돕기 위해 꽃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는 화훼소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작된 '꽃 선물 릴레이'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동참했다.

꽃 선물 릴레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식과 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화훼업계를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김선기 원장은 "꽃 선물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추천했다. /김진성 기자

##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 전북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무원 신속 의사결정 등 지원

전북도는 처음 겪는 코로나19 위기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풀가동하기로 했다.

징계나 문책 등을 우려해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인 행태를 막고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기대된다.

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과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없고 감사 지적의 우려가 있어, 의사결정에 부담을 느낀 담당공무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대도약기확대 지정, 감

사·인사·법무 등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TF 구성 등을 통해 이미 적극행정 지원 기반을 마련한 데 따라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의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견)대로 처리하면 사적이해관계 및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징계의결 면제 등 면책이 가능하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해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시행하지 않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강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수사 또는 소송에 처한 공무원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지원도 이루어지며, 주기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